

녹두밭

2022 | 봄 | 47호

녹두칼럼

이만열
前국사편찬위원장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주요뉴스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소개

유족인터뷰

김성황
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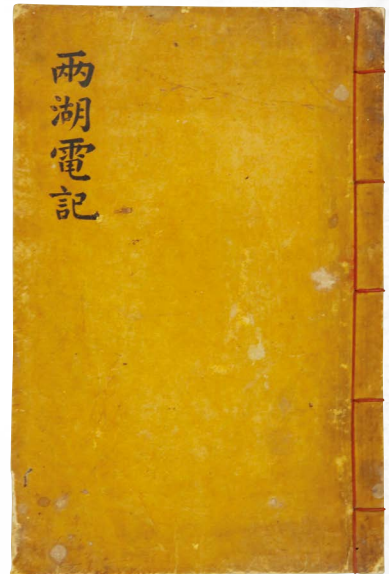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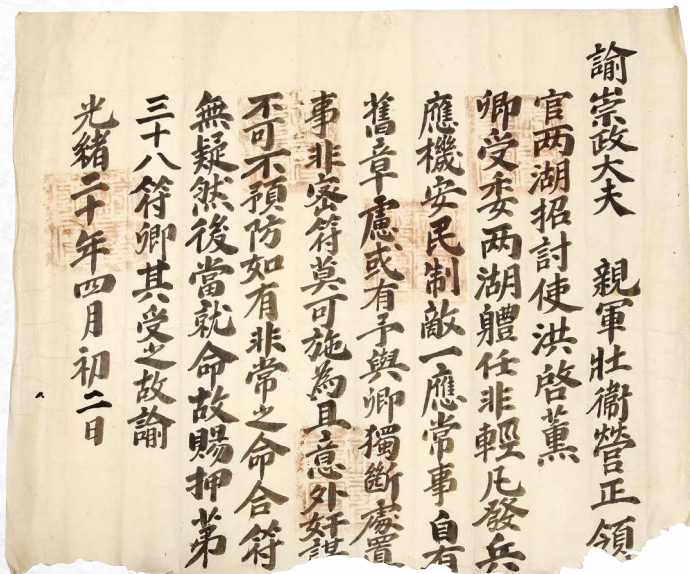
지역대담

장명진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홍계훈유서와 양호전기



『홍계훈유서』(洪啟薰諭書) / 『양호전기』(兩湖電記) 1894년, 58×67·32.5×21cm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홍계훈유서』는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조선 정부가 조직한 양호초토영의 최고 책임자인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1894년 4월 2일 고종이 내린 일종의 군사명령서이다. 고종은 이 문서를 내리면서 동학농민군 진압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당부와 함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신표(信標)를 하사하였다.

『양호전기』는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1894년 4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고종을 비롯한 조선정부와 주고받은 전보이다. 일자별로 수록한 이 사료는 필사본 형태로 2부만이 전해지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 원산칠봉에 진을 친 진압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상황은 물론이고 전주화약 체결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목차

- 04 **녹두칼럼**
이만열 / 前국사편찬위원장
- 06 **뉴스초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동학농민군 편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30년사 발간
- 09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기획전시] 1894년 그들, 그림되어 돌아오다
- 15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소개
- 20 **참여자 유족인터뷰**
김성황 / 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 28 **지역대담**
장명진 /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35 **유적지탐방**
문병학 / 충남 서천·한산지역을 찾아서
- 41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사업단체 행사
- 43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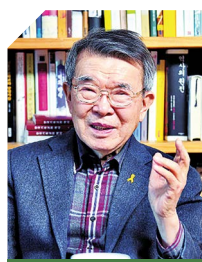
표지 설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상징조형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추모관과 전시관 뒤편에 위치한 이 상징조형물은 동학농민혁명 초기 농민군의 주 무기였던 죽창(竹槍)을 모티브로 삼았다. 대나무가 차츰 굳세고 단단한 스틸재질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순박한 농민이 혁명가로 변모해가는 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동학농민혁명과 서훈문제



이만열 前국사편찬위원장

우리 세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관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살아왔다. 초·중·고에서는 ‘동학란’으로 서술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 그런 역사관의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동학란’이란 용어는 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계급 중심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역사관의 표현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고려 무신정권 때 일어난 ‘노비해방운동’은 ‘천민의 난’일 수밖에 없었고, 최충헌 때 노비 만적(萬積)의 거사는 ‘만적의 난’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1940년대 전후한 시기에 조선학을 공부하던 이들 중에는 고려 시대의 민중운동을 적극 평가하여 ‘노비해방운동’이니 ‘만적의 노비해방운동’으로 평가한 분들이 있었다.

1960년 ‘4.19혁명’은 역사학계의 이런 시각을 바꾸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배자 중심의 역사인식을 민중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럴 때 당시 동학농민들이 주장한 ‘폐정개혁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백성을 짓눌러온 봉건적 억압과 폭정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이런 주장과 행동이 왜 ‘반란’일 수 있는가 하는 자기반성이 주어졌다. 그 주장들은 당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며 백성들을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슬로건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학란’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자리잡아갔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운동의 큰 봉우리로서 3.1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을 견인해내는 동력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제1차 ‘반봉건’적 성격과 제2차 ‘반제·반외세’의 성격을 가졌다. 제1차 봉기(1894.2)는 조선사회의 봉건체제를 개혁하려는 혁명운동이었고, 제2차 봉기(1894.9)는 일본군의 침략에 저항하는 혁명전쟁적 성격을 가졌다. 혁명전쟁이란 혁명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이 혁명에 대항하는 외세의 개입이 있을 경우 혁명군이 그 외세와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봉건세력이 청나라의 개입을 요청하자 이를 구실로 일본군이 침략하게 되었다. 한국의 왕실을 점령한 일제를 향해 동학농민혁명군은 반제·반외세의 투쟁에 나섰지만 산화되고 말았다.

제2차 봉기가 반제·반외세를 표방한 전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세에 저항, 주권을 수호하려는 반침략·독립전쟁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따라서 외세와의 독립전쟁을 이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들 중 이 독립전쟁을 이끈 지도자로서 우선 전봉준과 최시형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란’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가려 한국사에서 제 위치를 갖지 못했다. 4.19혁명 이후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은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조상들의 후예들은 숨어살다시피 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 인정·확산됨에 따라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총리실 산하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최시형 전봉준 손화중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로서의 서훈을 요청하게 되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항일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요청은 각계에서 분출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제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보다 조금 앞서 일어난 ‘갑오의병’(1894.8)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려고 하는 만큼 최시형 전봉준을 포함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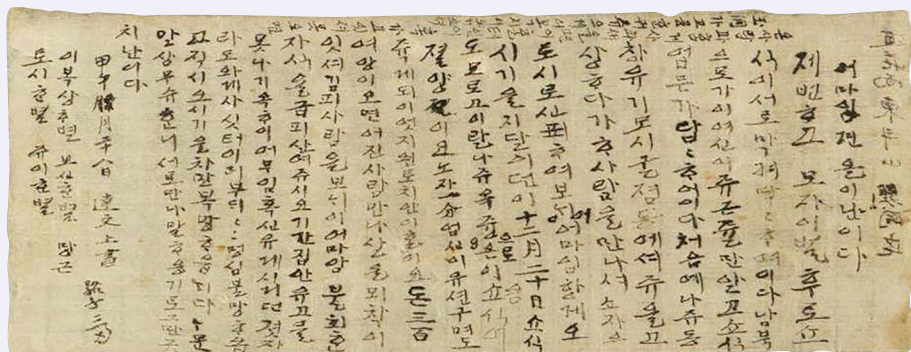
이만열 | 상지대학교 이사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서울대에서 역사를 공부하였고, 독립운동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함석헌학회 회장,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위원회' 위원장, '뉴 코리아'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단체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한국 기독교 의료사』 등의 저서와 최근에 간행된 산문집 『역사의 길, 현실의 길』이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동학농민군 편지 —

소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증 : 한달문의 손자 한우희



▣ 동학농민군 편지(한달문 편지)

문화재청은 「동학농민군 편지」(한달문 편지)를 2021년 12월 7일 문화재등록 예고한 후 2022년 2월 10일 국가등록문화재 제825호로 등록하였다. 이 편지는 전라도 화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나주 감옥에 갇힌 한달문(韓達文, 1859~1895)이 고향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지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21.2cm이다.

한달문은 유년시절부터 영민하여 젊은 나이에 무관의 벼슬을 하였으나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외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에서 보국안민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는 1894년 봄 1차 봉기 때는 물론이고 9월 전라도 삼례에서 단행된 2차 봉기에도 참여하였으며,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주로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12월 나주 동창의 유기모 시굴점(현,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등에서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배하였고, 이때 참전했던 한달문이 체포되어 나주 감옥에 갇혔다. 이 시기인 1894년 12월 28일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 300냥과 의복을 지어서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다. 그는 3월 30일 나주 감옥에서 풀려나 귀가하였으나 옥살이 하던 중 맞은 곤장 휴유증 즉 장독(杖毒)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이틀 후인 4월 1일 세상을 떠났다.

편지 내용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제번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처음에 나주 동창 유기모 시굴점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소자의 토시로

신표를 하여 보내어 어머님 함께 오시길 기다렸더니,

12월 20일 소식도 모르고 이날 나주옥으로 오니 소식이 끊어지고

노자 한 폰 없으니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 하리요.

돈 300여량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실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소.

그간 집안 유고를 몰라 기록하니

어머님 몸에 혹 유고 계시거든 옆 사람이라도 와야 하겠습니까.

부디부디 명심 불망 하옵고 즉시 오시기를 차망 복망하옵니다.

남은 말씀 무수하니 서로 만나 말 하옵기로 그만 그치나이다.

1894년 12월 28일 달문 상서

의복 상하 벌, 보신 한 벌, 토시 한 벌, 주의 한 벌, 망건, 노자 2량

온 사람과 함께 가 과세를 편히 할 터이니

혹 기고가 있어 못 오면 옥동 가고골 한기수에게 의복지어 보내소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30년사 발간

지난 2월 12일 토요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이사장을 비롯하여 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함께해온 유족회 임원 정남기, 임영섭, 김성황, 함기영, 문영식 등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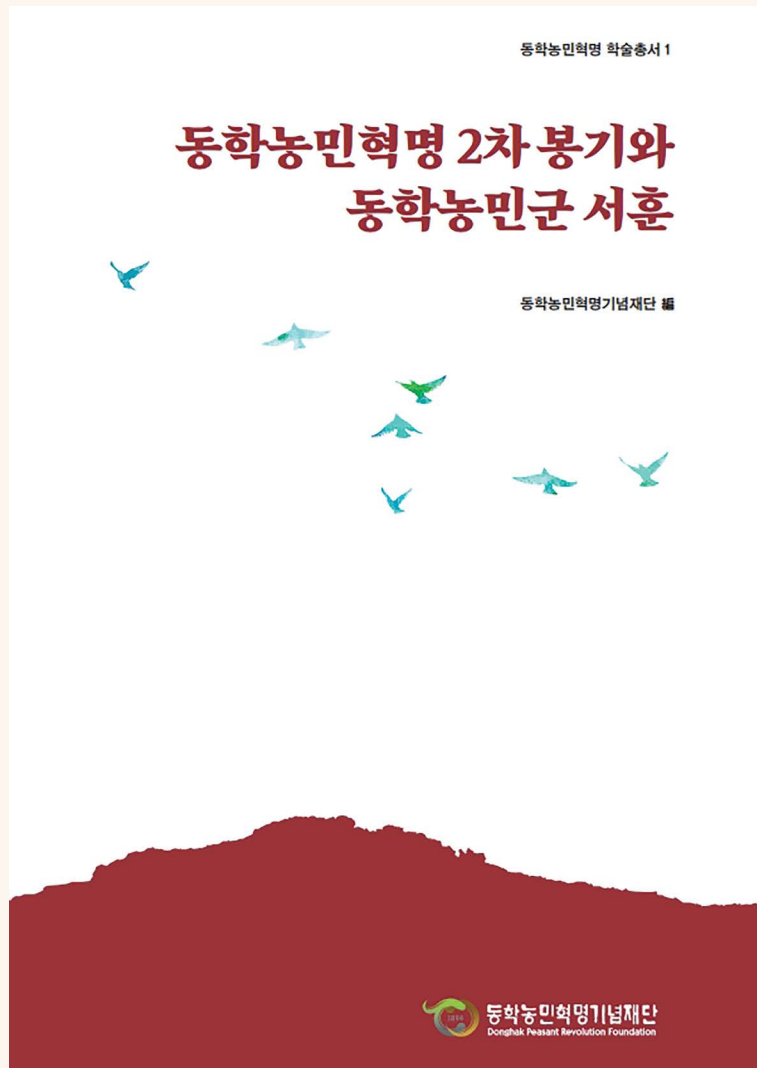


▣ 30년사 편찬 좌담회 기념사진



▣ 30년사 발간 축하모임 기념사진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지난 해 12월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을 발간하였다. 학술총서는 2021년 여름에 열렸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문을 중심으로 엮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9차 이사회



지난 2월 23일(수)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9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결산안, 재단 5기 임원 추천 및 선임, 규정개정안 등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고, 보고안건으로 2022년 재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기념공원 개원식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객병창(우석대 교수), 김봉기(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문영식(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함기영(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이사가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기 제5차 자문위원회



지난 2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4기 제5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4기 제9차 이사회에 상정할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비롯하여 오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열릴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 추진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명성(前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용선(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백승중(경희대 교수), 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전성수(前문체부 서기관), 전성진(前MBC전주방송 사장), 최순삼(순창여자중학교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1894년 그들, 그림 되어 돌아오다



■ 기획전시 포스터

2021년 12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에서 “1894년 그들, 그림 되어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가 개막되었다. 2022년 5월 1일까지 이어진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 및 유물을 중심의 기존 전시의 틀에서 벗어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된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그동안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문화예술로 꽃피우기 위해 노력해온 전북지역 작가 16명의 창작물 35점이다. 서양화, 한국화, 판화, 설치작품 등 다양하게 장르의 예술작품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형상화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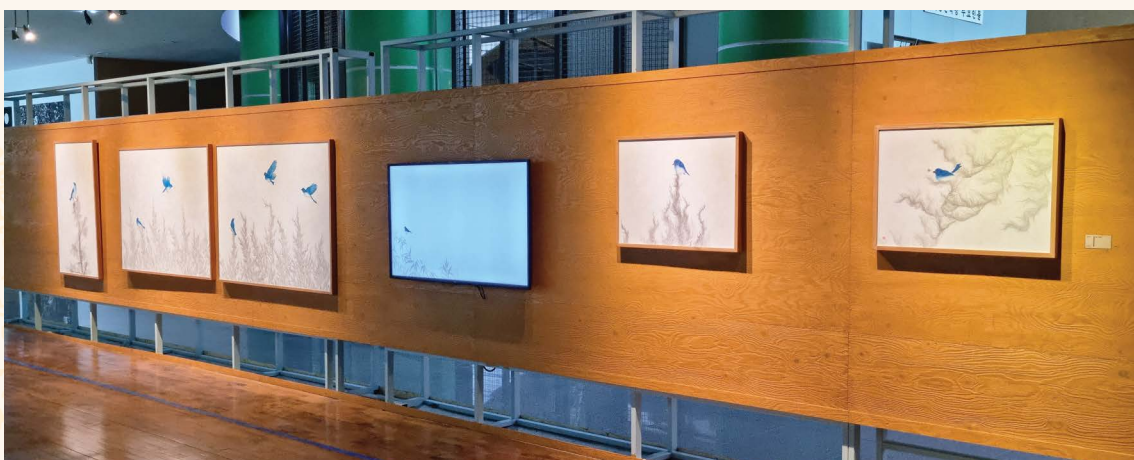
▣ 제1전시실 입구



▣ 제1전시실 내부



▣ 제2전시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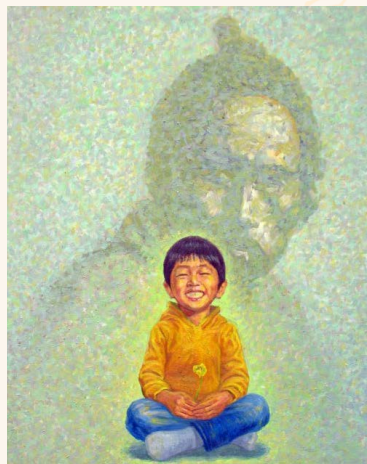
▣ 제2전시실 내부



전야
이기홍



전사가 가는 길
박흥규



녹두꽃
윤철규



착한 사람들
한숙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소개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한 정읍향토현전적(사적 제295호) 일대 292,427.40㎡ 부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완공되어 개원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과 함께 문을 열게 될 기념공원은 기존의 시설(사발통문광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교육관, 옛 기념관, 제민당, 구민사,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 더하여 전시관과 추모관, 연수동, 캠핑장, 방문자센터, 편의시설, 상징조형물, 울림의 기둥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6년 실시설계, 2018년 국·공유지 양수 및 매입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1월 착공, 2021년 12월 완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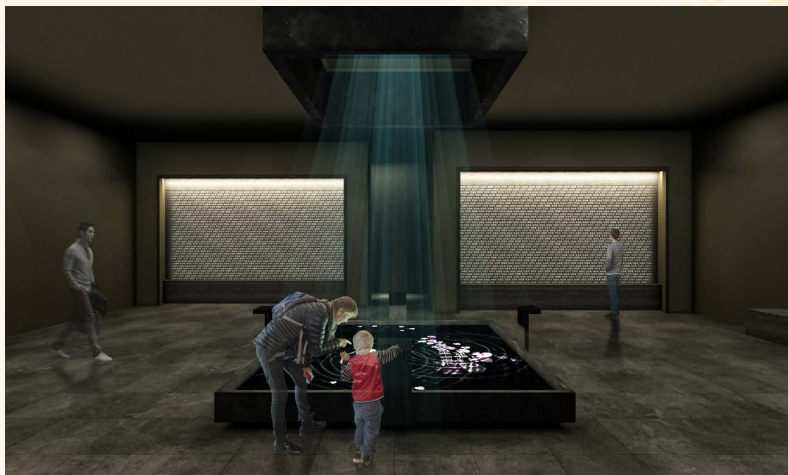
전시관

신설된 전시관은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관들이 대체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따르던 전시 패턴을 지양(止揚)하고 관점을 제시하는 전시관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전시관 구성의 네 가지 관점은 첫째, 농민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둘째, 전국에서 민중·민족항쟁이 일어나다. 셋째,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넷째, 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가 되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추모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추모관은 중앙의 하늘창(천창 天窓)에서 내려오는 빛을 활용하여 상호교감 영상기법으로 참여자 영전(靈前)에 꽃을 바치는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추모관 내부 벽면에는 지금까지 조사·등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94명(신청조사 548명, 직권조사 3,146명)의 명패를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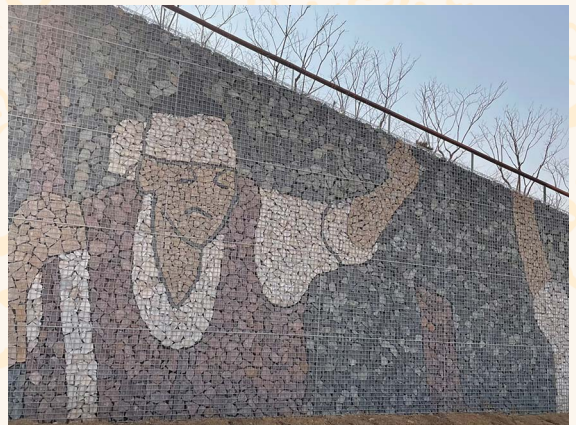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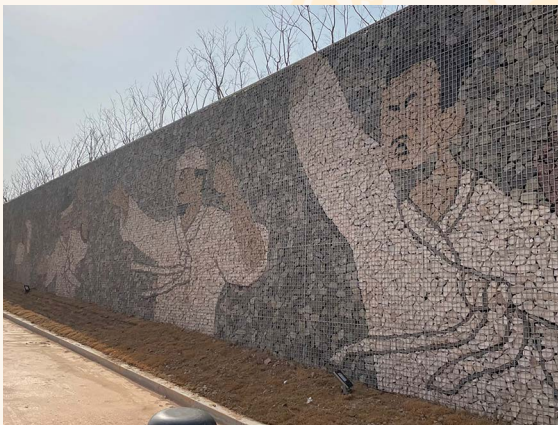
상징조형물

전체적인 형태가 원형인 상징조형물은 맨 땅 위에 솟아오른 대나무가 차츰 굳세고 단단한 스틸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대지에 기반하여 살아가던 농민들이 낡은 제도에 맞서 죽창을 들고 일어나 점차 강인한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스틸이라는 재질의 강한 특성과 투영(投影, 거울 효과)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상징조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사 또는 투영되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 역사속의 인물과 지금, 여기, 내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예술적 상징을 담고 있다.



농민의 벽

새로 문을 여는 전시관 외벽 경사면(높이 0.5~5.0m, 길이 88m)을 활용하여 동학농민군을 돌망태 조형예술(개비온)로 형상화한 벽이다. 이 기념시설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세상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결연한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6가지 색깔의 화강석을 활용하여 모자이크 기법으로 동학농민군 전투장면을 재현한 이곳은 방문객들이 추모의 글귀 등을 무명천에 적어 철망에 묶어놓을 수 있는 참여의 공간이기도 하다.



기억의 들판 및 동학농민혁명의 길

기억의 들판은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의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크게 승리한 황토현전투 당시의 자연환경을 되살린 공간이다. 산과 산 사이, 구름지였던 황토현전적지는 물길이 흐르는 논과 마을이 있었다. 사적(史蹟)과 이어진 보호구역이라서 시설물 신축 등이 제한되어 당시의 원형(논배미)을 복원하였다. 한편, 방문객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논배미 사이 사이 길을 만들고 이 길을 '동학농민혁명의 길'이라고 명명하였다.



울림의 기둥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봉기했던 서울·경기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 등 전국 90개 지역을 상징하는 기념조형물이다. 흰색의 기둥은 무명옷을 입은 농민군을 상징함과 동시에 혁명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연수동 및 캠핑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범국민적 확산의 기틀인 교육연수 및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연수동과 캠핑장을 조성하였다. 연수동은 2인실 5개와 4인실 8개로 1일 4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캠핑장은 일반캠핑 29면과 오토캠핑 22면으로 한꺼번에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사발통문 광장

사발통문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暴政)을 제거하고자 작성된 거사계획(1893. 11.)이다.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 모양으로 등글게 서명한 사료(史料)의 형태를 광장으로 재해석하였다. 광장 둘레에 세워진 기둥은 죽창을, 기둥 상부의 뾰족한 타원형은 횃불을 상징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김성황

일 시 : 2022. 2. 9(수) 13:00

장 소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

문병학 이번 호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김응문(金應文, 1849~1894) 님의 증손자 김성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황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무안군 몽탄면에서 지도자로 참여하셨던 김 응자 문자 님의 증손자 김성황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거 같습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해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인식되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크게 재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인식이 전변해온 과정에서 저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을 시작하여 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신선양사업과 참여자분들의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병학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요?

김성황 사실 저는 2000년대 이전에는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도 제게 증조부님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증조부님 제사를 모셨던 것은 기억하지만 1990년대까지 집안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18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 당시 열 세 살이었는데 그해 12월 집안 어른들이 처형을 당하신 것이지요.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난 것을 직접 겪으셨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조상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일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대까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아일보에서 고 이이화 역사학자께서 힘을 기울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총서를 발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침 제 딸이 연세대학교 사학과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규장각 연구원이었던 왕현중 교수와 연이 닿아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네, 가슴 아픈 얘깁니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많은 경우 그런 아픈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지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 혁명의 기세가 꺾인 후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관객지를 떠돌거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고충도 모자라 심지어는 성까지 바꾸면서 살아야했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증조부님의 경우는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황 증조부님께서 그 지역의 향반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 증조부님께서 먹고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참여하셨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증조부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조부님



께서는 고향에서 그대로 생활하셨습니다. 제 증조부님께서는 1849년 4월 22일생으로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에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곳에서 9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많은 덕행을 행하여 지역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패배한 이후 증조부님과 형제분들은 처형을 당하셨지만 저의 조부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94년 11월 18일 나주목사 민종렬이 이끈 고막원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패배한 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저희 집안 어른들은 수성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지요.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만, 그 후손들 그러니까 저의 조부님은 타향살이를 하지 않고 고향의 지근지처에 있는 처가 또는 외가에 4~5년 머물다가 1899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집안이 대대로 예목제(禮睦濟)와 의분고(義分庫)를 두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할 때 제례장비 등을 빌려줘서 예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고, 춘궁기에는 양곡을 대여해서 초근목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덕을 베풀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패배 이후에도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한 증조모이신 함평노씨(咸平魯氏)께서 자손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준 것도 다른 경우처럼 타관으로 떠돌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문병학 인터뷰를 위해 증조부님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 증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로 무안군 몽탄면에서 점주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명 당시 증조부께서는 나주 김씨 집성촌인 무안군 다산리 차피마을 생가(生家) 뒤 대밭에 대장간을 조성하여 동학농민군이 사용할 각종 병기를 제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당시 증조부님이 태어나셨던 차피마을 집은 약 2500여 평으로, 7채 정도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뒤편에 고인돌이 있는 대밭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장간을 만들어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각종 병기를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무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그러면 배상옥(배규인) 대접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분보다 저희 증조부님께서 연배가 더 있으셨고 집안의 재력도 훨씬 더 풍족했다고 합니다. 배상옥 대접주 집안과 저희 증조부님 집안이 서로 의기를 모아 무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지역에서 세력을 강성하게 형성하여 동학농민군 활동을 전개한 배상옥 대접주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이 된 분이 저희 증조부님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증조부님 집과 배상옥 대접주 집은 직선거리로 5~6k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병학 네,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증조부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 이전에는 나주·무안지역 향반으로 향교 등에서 맡았고, 많은 군자금을 내놓거나 무기를 만들어 동학농민군을 지원하는 등 무안지역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의 활동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황 증조부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곳이 나주 김씨의 집성촌이어서 향교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셨지요.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1887년에 향교의 유사를 맡아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해 가을 석전제 때 예를 집행하던 집례(執禮)를 맡기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시던 저희 증조부님 형제와 아들이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는 1894년 4월인 것으로 나옵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따르면 4월 25일 백산대회에 참여한 무안지역 장령급 집주들 중의 한 사람으로 저희 증조부님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고, 형제들과 아들도 함께 백산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당시 증조부님 집안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자금을 모아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문병학 증조부님께서 군자금을 모으는 한편 총, 화살 등의 무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김성황 고 이이화 역사학자, 신영우 교수, 왕현종 교수 등 여러 역사학자들이 100주년 기념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안·함평·영광 쪽의 기록은 시간이 없어서 자료조사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 증조부님의 참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들께 무안 함평 쪽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이화 역사학자께서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나주 지역 답사를 증조부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증조부님 사후에 집터 뒷집에 다른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곳에 아직도 우물터와 10개의 고인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인돌 밑에 무기와 엽전 꾸러미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께서 군자금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병학 선생님께서 처음에 잠깐 언급하셨듯이 증조부님 뿐 아니라 집안 어른들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증조부님이신 김 응자 문자, 그리고 그분의 동생들인 효자 문자(金孝文, 1851~1894), 자자 문자(金子文, 1868~1894) 님이 함께 참여하였고, 나아가 증조부님의 큰 아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큰조부님이신 김 여자 정자(金汝正, 1867~1894) 님께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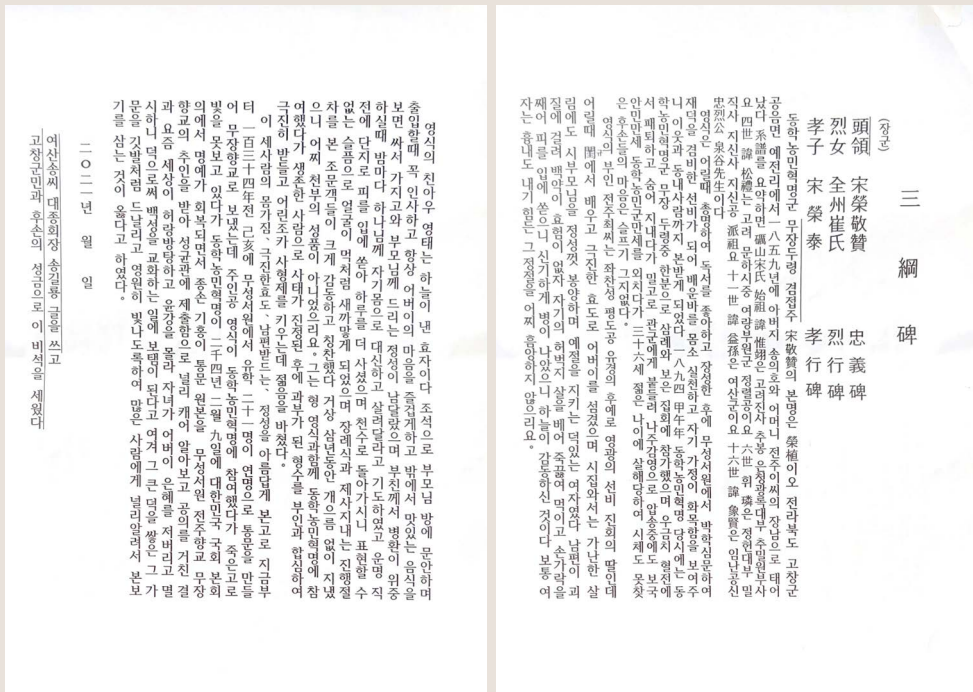
김성환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이 어려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전봉준 장군 활동에 호응하여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첫째 김 응자 문자, 둘째 김 효자 문자, 넷째(막내) 김 자자 문자, 그리고 첫째 김 응자 문자의 장남이신 김 여자 정자 님께서 무장기포, 백산전투, 고막원 전투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셋째인 김 윤자 문자(金允文, 1864~1895) 님께서는 가계를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이 고막원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어른들께서 피신한 곳이 김 여자 정자의 처갓집이 있는 함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계시다가 체포가 되어 1894년 12월 8일 첫째 김 응자 문자, 넷째 김 자자 문자, 김응문의 장남 김 여자 정자님이 무안관아에서 처형이 되셨고, 나흘 뒤인 12월 12일에 다른 곳으로 피신했던 둘째 김 효자 문자님은 같은 나주 김씨이지만 집안이 다른 김 문자 일자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셋째인 윤자 문자님께서도 끌려가 매질을 당하셔서 장독(杖毒)으로 1년 뒤인 189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문병학 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증조부님과 그 형제분들 그리고 아드님의 묘소는 어디에 있는지요?

김성항 처형된 이후에 곧바로 유체를 바로 수습하지는 못했으나 다행히 우리 집안이 덕을 쌓고 살았던 덕분에 다른 어른신께서 처형장에서 증조부님의 머리만을 거두어 선영이 있는 월구정(月鉤頂, 現 무안군 무안읍 옥반동) 둔덕에 애기무덤 같은 작은 무덤을 만들어 투장(偷葬)했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인 김 자자 문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조부님 묘 바로 밑에 투장되었습니다. 1996년 증조부님과 함께 합장하기 위해 증조부님의 묘를 파묘한 결과 묘 안에 웅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유골(머리)을 보고서야 증조부님께서 효수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조부님께서는 현재 다산리 용매마을에 안장 뜰에 모셔져 있고, 막내 동생인 넷째 김 자자 문자님은 원래 증조부님이 모셔져 있던 월구정 묘 아래에 모셔져 있습니다. 둘째 효자 문자님은 몽탄면 사천리에 모셔져 있고, 증조부님의 아들인 여자 정자님은 무안읍에 모셔져 있습니다.

문병학 선생님 증조부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께서 남긴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창비(顯彰碑) 건립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비 건립을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창비문(읽는순서 : 왼쪽에서 오른쪽)

김성항 현창비는 1996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육군 제31사단 사단장이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조부님의 현창비를 몽탄면 다산리 마을회관 앞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기에서 나아가 최근 저희 나주 김씨 유족들이 모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 기념일도 제정되었으니 너무 늦었지만 마땅히 흩어져 있는 증조부님들의 묘소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후손들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체가 실제로 보존되고 있는 사례가 흔치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선조님들 5분은 유체를 비밀리에 수습하여 별도로 모아서 보존해왔기 때문에 유골이나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역사적 책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물론이고 무안군, 무안군문화원이 뜻을 모아 무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공원을 세워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 받았습시다.

문병학 네, 현창비 건립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요?

김성황 지금까지 나주김씨 종친회의 허락을 받아 현창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차뫼 마을 앞에 현창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세워 추진 중인데, 현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유족들이 약 200㎡(60여 평)의 부지를 무안군에 기부를 하였고, 제반의 행정절차를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무안군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계획을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여 무안동학농민군 추모공원의 규모를 더 키우는데 힘써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계획 상으로는 참여자분들이 돌아가신 날인 음력으로 지난 해인 2021년 12월 8일(양력 1. 10.) 이전에 완공하여 개원하려고 하였으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종친회는 물론이고 무안군, 무안군문화원,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과의 업무협약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일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무안군 담당자와 작년 9월에 면담한 결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



도 1분기 때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올해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반기 경에 완공한 다음 하반기에 추모문화예술제 개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병학 네, 선생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빠뜨린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28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갑오년 겨울에 근대적인 신무기로 무장하고 정예훈련을 받은 일본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여 미완의 혁명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은 3·1운동, 4·19혁명 등 우리나라 근대민족운동, 현대 민주화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왔습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의 구국애민 정신이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졌음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기념일도 제정되어 매년 정부주최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은 국가유공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문제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기념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병학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 : 2022. 1. 26(수) 12시

장 소 : 아산기념사업회 사무실



문병학 이번 호 지역대담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하 아산기념사업회) 장명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바쁜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명진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진입니다. 저는 1985년부터 전국농민회의 전신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농민회(아산지부)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고, 충남도연맹 의장직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농민회 활동을 비롯해서 아산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기

울여왔습니다. 현재는 (사)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회장, 동학농민혁명참여자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문병학

네, 아산지역에서 이사장님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자기 이익 이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한 물질만능주의 시대 세상에 딱히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정의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아 오신 것에 대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진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기가 이익은 커녕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직이나 사회의 정의를 아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님은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러 오는 길이 좀 멀지만 아주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처럼 전국 각 지역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념사업단체가 2022년 봄 현재 34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늘 웃짓을 여미게 됩니다. 저는 재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말입니다.(웃음)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2015년에 창립하였지요? 창립 당시의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활동 연혁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아산기념사업회는 2015년도에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초창기 때 이사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정해곤 선생님입니다. 정해곤 선생님께서 15년과 16년 이사장을 맡아 고생하셨고, 그 뒤를 이어 부족한 제가 17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기념사업회는 아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회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서 창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는 연합체 형태로 창립을 준비하려고도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그냥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열대여섯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아산 기념사업회 창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정태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증손자이신 정해곤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처음에는 조출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부장님께서 잘 알고계시겠지만 우리 아산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볼 때 중요한 기점이 있다거나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활동거점이었다거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전투지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산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관련하여 우리 아산지역은 그 역사적 현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역사연구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산지역이 정말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갑오년 정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한 후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강전투 등등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전라도를 휩쓸고 전라감영 소재지 전주성을 장악했겠습니까? 그 뒤 어찌되었습니까? 조선정부가 전라도 전주성에 들어와 있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청나라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자국민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대를 조선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때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 삼고천 등등 서해바다로 들어왔잖아요. 일본군도 서해안 인천으로 들어왔고, 이후 일본군이 서해 풍도에 있는 청나라 군함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산지역은 다른 지



역에 비해 반외세 반침략 정서가 강하게 대두된 곳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대가 내포지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여튼 내포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아산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말하면 딱히 알만한 전투가 있었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후 3·1운동 때 이웃의 천안과 우리 아산지역에서 만세운동이 거세게 타올랐던 게 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깊이 자리 잡은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맞습니다. 아산기념사업회 창립이 2015년 11월 초겨울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6년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옛 온양군 관아였던 온주아문 앞에서 동학농민군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올렸지요? 동학농민혁명 122년 만에 아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위령제례를 모셨는데,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으로 저도 위령제에 참석하여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장명진

아산기념사업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추진한 사업이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의의를 알리기 위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산을 비롯한 서해안 내포지역이 주요 전장(戰場)이었던 청일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책을 발행한 후에 위령제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위령제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주아문 앞에서 모셨고, 그 뒤 두 번째 행사부터는 온양온천역에서 위령제를 모셨지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온양온천역으로 위령제 장소를 옮긴 것은 위령제를 모시는 것과 함께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사와 그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중적인 곳으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다가 욕심이 생겨서 세 번째 해부터는 이 사업을 문화제로 외연을 넓혀서 우리 아산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동아리와 연계하여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시낭송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느닷없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 그 이후로는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밖에도 아산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아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창현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 선생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장면 동학농민군 기포 터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태영 선생 묘역에서 위령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22년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 선생님 서거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사업추진을 다지는 차원에서 작년에 그분 묘역을 찾아가 위령제를 올렸던 겁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현재 전국의 단체가 34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34개의 단체 중 충남 소재 단체는 모두 9개로 아산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예산, 태안, 당진, 공주, 논산, 천안, 금산,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천안) 등입니다. 그런데 금산기념사업회가 10여 년 전부터 활동을 멈춘 상태여서 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아직 기념사업단체가 없는 서산, 서천, 청양, 부여 등의 지역에도 기념사업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문병학 네,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활동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창립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이사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니까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체를 창립하는데 일정하게 사회적 혹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의 창립연도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이던 1994년 전후하여 단체가 창립되었고, 2004년 이후 특별법 제정 전후 그리고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 전후에 단체가 창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명진 맞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인 상황에서 조성된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요. 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해 가을에 태안기념사업회에서 백화산 교장바위 아래에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



■ 기미독립무인열매운동 기념탑

관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기념사업회에서 관악리 전적지를 성역화하기 위해 예산군은 물론이고 충남도청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정태영 선생님 순국 100주입니다. 충남지역 저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과 성과들을 백분 활용하여 아직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지 않는 시군 농민회 등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내갈 생각입니다. 그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열정에 기대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기념재단에서 힘을 보탬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내포지역은, 아산시 등을 비롯하여

기미년 3·1운동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맥락이 3·1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이런 역사적 흐름을 증거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우리 아산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순국하신 고 정태영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순국하신 후 그분의 아들 고 정수길 선생님이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일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진 네, 그렇지요. 정태영 선생님의 증손자이자 정수길 선생님의 손자 정해곤 선생님이 아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국 유족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엄중하고 지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병학 네, 가슴이 묵근해지는 것이 이사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발족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명진 이미 2018년도에 충남 각 지역에 기념사업단체를 두고 있는 간부들을 모아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충남에 있는 기념사업회를 모아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현장투어를 하는 행사를 가졌지요.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각 지역의 사업 과련 연대교류를 활발하게 했었지요. 충남도청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원 정도 동학농민혁명 지원 사업 예산이 나오면 한 지역에 몰아줘서 기념행사를 확대 시켰습니다. 천안, 당진, 공주가 순서대로 해왔고 올해는 논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매달 만나지는 못하고 1년에 4~5번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서산, 서천, 청양, 부여가 하루 빨리 단체 형성을 하여 완전한 충남동학농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싶습니다.

문병학 아산지역에서는 동학농민군이 큰 전투를 벌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해 앞바다를 통해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으로 진출한 통로였고, 실제로 청나라와 일본간 전투가 벌어진 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산은 물론이고 내포지역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반침략, 반외세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많을 텐데, 기념시설물이나 유적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저희 아산지역의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직접적인 유적지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이어진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기념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명소입니다. 아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큰 전투가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침략 정서, 반외세 정서가 강하다보니 그 정서가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도저하게 흘러 3·1운동이나 무인멸왜운동으로 힘차게 솟아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직접적인 유적지는 아산 관아

터와 그 안에 위치한 여민루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점령했던 곳이지요. 아산관아의 문루였던 여민루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과 같이 지역에 굳건히 뿌리내린 분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제가 충남에서 나서 충남에서 자랐고,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충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의 동학농민혁명보다 결코 그 중요성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에는 전남 장성군 황룡전투나 장흥군의 석대들전투, 그리고 전북 전주시 전주성전투나 정읍시 황토현전투 등이 있지만 우리 충남에도 수많은 전투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잘 알려진 공주 우금티전투,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눌려 일본군이 내뺀 당진전투, 그리고 예산군 관작리전투, 홍주전투, 목천 세성산전투, 금산과 진산전투 등등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의 절곡으로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해서야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들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우리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아산기념사업회에서는 충남교육청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는 한편 이를 중고등학교 역사 부교재로 편찬하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충남지역의 역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일만이 아니라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우리 충청남도 천안, 아산, 평택 등지였다는 것을 알리고,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도탄에 빠진 삶을 구원하기 위해 펼쳐 일어섰던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 이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애쓰시는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천관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 서천관아 터에 들어선 서천군청

충남도 서천지역에 동학(東學)이 전파된 시기는 188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학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봉기 때 서천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까닭은 서천의 동학 지도자들이 봉기를 반대하는 북접(北接), 이른바 동학교단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전라도와 충청도 인접지역들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표면화하면서 서천지역의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1894년 6월 29일 인접한 전라도 함열과 성당(聖堂)으로부터 수십 명의 동학농민군이 무장하고 임천에 들어와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爲國安民)는 구호 아래 마을을 순찰하면서 총과 마필을 빼앗고, 궁민(窮民)을 구호한다고 부자들에게 돈과 재산을 빼앗았다. 그리고 7월 6일 동학농민군은 정산에서 진사 조창하를 살해하였고, 7월 7일 서천과 청양 등지에서 봉기하였다. 또한, 7월 9일 무장한 동학농민군 57명이 한산 방면에서 서천으로 쳐들어와 관아를 점령하였다.

서천을 점령한 이들은 "우리는 전라도 부안(扶安) 동학인이다. 전라도 연해에 정박해 있는 일본선박이 기백척이나 되며, 전라도 일도(一道)가 놀라고 있다. 계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족한 것이 마필과 군기이다."라고 말하면서 총과 마필, 화약, 철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방과 수성포수대장을 협박하여 총 6자루와 화약 3근, 철환 1백 개, 창 2자루 노새 2필, 말 1필을 빼앗았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때 서천과 한산지역에서는 비교적 단발적인 사건들은 이어졌으나 본격적인 봉기는 없었다. 그러다가 9월 18일 북접교단으로부터 기포령이 내려진 후 늦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동학농민군 활동이 적극화하였다. 11월 5일 한산 상지포(上之浦)에 주둔해 있던 동학농민군은 유회군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호남지역 농민군의 도움을 받아 11월 19일 한산읍성을 함락시켰다. 한산읍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화양산으로 진을 옮겨 주둔하다가 11월 20일 관군이 서천읍성에서 철수하자 곧바로 서천읍성을 공격하였다.

서천읍성에 들어 온 동학농민군이 민가를 불태우고, 관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군기고의 화약이 터져 서천관아가 잿더미로 변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천군수는 경군(京軍)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20일 오후 한산으로부터 경군이 들어와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패배한 동학농민군 몇 천 명은 서천의 삼수동(三水洞) 뒤 언덕에 주둔하였고, 또 몇 천 명은 남쪽연로와 포구 등지에 주둔하였다. 그 다음날 21일 관군은 서천 북쪽에 포진한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고, 동학농민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산관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249~3, 248~3



☐ 한산관아 터 위성사진

한산관아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에게 두 차례나 점령되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당시 한산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894년 가을 동학교단으로부터 기포령이 내려진 이후 동학농민군이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11월 5일 한산 상지포(上之浦)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유회군의 공격으로 흩어졌으나 이내 전라도 농민군의 도움을 받아 19일에는 한산읍성을 함락시키고, 화양산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20일 정오 무렵 한산에 도착한 관군의 기록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이후 한산관아는 동학농민군의 방화로 성안의 모든 인가가 모두 불에 탔고, 각 처의 관아 건물도 벽만 남아 있을 지경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산은 이후에도 전라도 함열과 웅포 지역의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되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 한산관아 터에 들어선 한산면사무소

화양산 전투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산23-1, 산29-1 일대



■ 화양산전투지 위성사진

화양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한산과 서천지역 동학농민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화산면 금당리와 기산면 화산리 사이에 있는 해발 100m 가량의 화양산은 방어에는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서천평야 한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도 유리한 곳이었다.

11월 18일부터 서천에서 들어온 관군과 이 지역의 유회군은 한산 두문동에 진을 치고 있다가 19일 화양산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군 1명이 전사하는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관군과 유회군은 후퇴하였다. 이틈을 이용해 화양산에서 내려온 동학농민군은 두문동 5개 마을에 불을 질러 관군과 유회군을 몰아붙였다. 그 다음 날인 관군이 서천읍성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바로 서천읍성을 공격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관아에 쳐들어가 화약을 터뜨려 모든 관아를 잿더미로 변하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천군수는 경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20일 오후 한산을 출발하여 서천에 도착한 경군은 동학농민군을 후미에서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다음 날에도 관군은 동학농민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크게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 화양산전투지(원경)



▣ 금당리에서 바라본 화양산

- 참고자료 |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巡撫先鋒陳騰綠』,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2』,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 『錦藩集略』,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 『洪陽紀事』,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3』,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 『兩湖右先鋒日記』,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2021년 12월 17일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동학농민혁명국제컨퍼런스조직위원회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세상을 바꾸는 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라는 주제로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도올 김용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연대회의 제1부「한국의 고부농민봉기와 일본의 농민혁명」에서는 먼저, 한국의 고부농민봉기를 주제로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일본의 농민혁명에 대한 고비야시 데스야 동양대학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제2부「중국과 러시아의 농민혁명과 기억」에서는 먼저, 중국의 농민혁명과 기억을 주제로 귀뤄자 중국현대사연구원의 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러시아의 농민혁명과 기억을 주제로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노브고로드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제3부「독일농민전쟁 500주년과 체 게바라의 혁명정신」에서는 먼저,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주제로 토마스 뮐러 뮌하우젠 박물관장의 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체 게바라의 혁명정신을 주제로 마틴 게베라 두아르떼 체 게바라 연구가의 발표가 있었다.

전북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원평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제례



2021년 12월 21일 원평집강소에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최규섭)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원평 구미란전투 희생자 추모제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원평장터→3·1만세운동기념비→구미란전투지→동학농민군 묘역으로 이어지는 길놀이로 시작되었다. 길놀이에 이어진 기념식은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추모글 낭독, 최광식 시인의 추모시 낭독, 안경엽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의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피켓 행진, 박달한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의 추모 몸사위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안정 절골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덕명 장군 묘역을 참배하였다.

전북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



지난 1월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 주최로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 동순 시인의 시'녹두'를 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국민의례, 헌수, 봉정, 헌화, 헌주 의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는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성준 전봉준장군 후손, 김용선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등 소수 초청인사로만으로 진행하였다.

전북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지난 2022년 1월 21일 전주시 주최로 동학농민혁명 기념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이 전주 라한 호텔에서 열렸다. '혁명의 예술, 근대혁명 도시들의 문학과 영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문명전환기 혁명의 기념과 재현 : 미래로 열린 과거의 상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제1부「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의 근대혁명기 문학관」에서는 먼저,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문병학(시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시바료타로와-타올라라 검!」이라는 요코시마 고지(일본 삿포로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독일농민전쟁과 러시아의 혁명문학과 영화」에서는 먼저, 「독일영화 속의 사회주의 운동과 독일농민전쟁」이라는 토마스 뮐러(뮌하우젠 박물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소설-고뇌 속을 가다」라는 엘레나 이코니코바(사할린 국립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3부「아일랜드 농민혁명과 체 게바라의 혁명문학 및 영화」에서는 먼저, 「영화에 묘사된 아일랜드의 혁명과 인물」이라는 쿼바 닉 고바이드(영국 셰필드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작가, 체 게바라 연구가)의 발표가 있었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2월 16일	오마이뉴스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
12월 16일	전민일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동참 이어져
12월 19일	한겨레	말 타고 동학혁명군 지휘한 이소사 여장군 영상 ‘눈길’
12월 20일	뉴스프리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결의안 환영”
12월 23일	서울경제	정읍시, 동학혁명 사료 발굴...“역사 재정립”
12월 23일	뉴시스	태안동학농민관 ‘승언리 상여, 옛 모습을 되찾다’특별전
12월 23일	위키트리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2월 30일	전민일보	태인면 상가번영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동참
1월 2일	전민일보	정읍조사료연결체협의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200만원 기탁
1월 5일	전북일보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기금 기부
1월 6일	전북일보	전라감영·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전람회 개최
1월 6일	전민일보	정읍시 총무과 최천룡 팀장,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동참
1월 10일	연합뉴스	‘녹두장군’전봉준 탄생 166주년... 기념행사 고창서 열려
1월 11일	새전북신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 매듭지어야”
1월 1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하나다
1월 1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 제1회 세계혁명예술품 전국국제포럼 개최
1월 20일	뉴시스	도올 김용옥, 동학농민혁명 원천은 바로 이것...‘용담유사’
1월 21일	전주MBC	‘우리의 문화자산’..‘동학농민혁명’재조명
1월 23일	전라일보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은 세계 시대 흐름의 혁명”
1월 23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의 만남’ 제1회 세계혁명예술품 전주국제포럼 개최
1월 24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종합계획 세워라
1월 24일	전라일보	동학혁명 가치 브랜드화 하자
1월 26일	전주일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전라도 ‘고부’입니다
1월 27일	전북일보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19대 김봉승 이사장 취임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 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1월 28일	아주경제	동학농민군과 항일의병과 격전지 금성산성
2월 4일	강원일보	[한민족 4천년 역사에서 결정적인 20장명] 폭정 못이겨 봉기한 농민 2만명, 관군·일제 협공에 장렬한 최후
2월 7일	동양일보	동양칼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10일	전북일보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쓴 편지 국가문화재 등록
2월 11일	충청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2월 14일	새전북신문	[기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4000여명을 응원한다
2월 16일	경남신문	남해군 동학혁명 지원 조례 추진
2월 17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전국 봉기 이끈다
2월 17일	세계일보	“동학 정신 이어받아 민족 통일로 나가자”...정읍 고부서 40여 단체 결의
2월 22일	새전북신문	원광대 동경대전연구회, 근대 일본의 동학 인식 콜로키움 개최
2월 26일	Breaknews	독립운동 시작: 을미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의 비교
3월 2일	e대한경제	[특별기고] 동학(東學) 정신을 계승한 3·1운동
3월 14일	대한금융신문	(주)뉴작, 전남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XR-미디어 아트 체험공간 조성
3월 14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30년의 발걸음
3월 16일	프레시안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역임한 기산 이현도 원정사 열반
3월 17일	위키트리	정읍시, 제55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대상 후보자 추천
3월 17일	JTV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시군)

2022년도 동학농민혁명 교육·체험 프로그램

■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
탐방 프로그램	1894! 동서남북	5월 ~ 12월	기념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연계 프로그램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기념공원, 전시관	초등학생
청소년 프로그램	박물관에서 잡(Job)은 내 꿈!	8월 ~ 12월	기념공원, 전시관	중·고등학교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이후 재단 홈페이지 참조

■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인원
생생 문화재	녹두장군과 함께 하는 1박 2일	4회 (4~10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가족, 일반 / 회차당 30명 이내(유료)
	파랑새를 찾아서	4회 (4~11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전국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 / 회차당 30명 이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4회 (4~11월)	전북일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관	65세 이상 지역 내 어르신, 어린이 / 회차당 30명 이내
	꿈을 품은 박물관	4회 (9, 10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교육관	전국 중학생 / 회차당 30명 이내

■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참여대상/인원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처음 만나는 동학농민군	3월 ~ 12월 (각 5회씩 15회)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기념공원	초등학교 저학년 회당 20명(유치부 가능)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지금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교육관, 상설전시실, 기념공원	초등 고학년~고등학생 회당 20명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각 학교 교실 또는 강당	초등 3학년 ~ 중·고등학교 회당 20명
교육청 답사	전북 교육청 연계 답사	5 ~ 11월	전북 동학농민혁명 답사지	학교별 25명/ 전북교육청에 선정된 학교 25명
교원 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	여름방학 중 2회	전라, 충청 지역 답사지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교육관	전국 교원/ 회당 30명(총 2회)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 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 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 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 수 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0-943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 온라인 접수·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0-9434)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및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참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